(필리핀) 11월 현지 관광정책 및 시장동향

'26. 11. 25(수) / 마닐라지사

◈ 필리핀 관광부,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 출입국 보안 시스템 현대화에 따른 신규출입국 수수료 부과 검토 논란

◈ 올해 1~9월 필리핀의 항공 여객 수송량 1.13% 감소

◈ 필리핀 저비용 항공사 세부퍼시픽(LCC), 10월 운항실적 발표

◈ 11월, 기존 연휴 및 ASEAN정상회담에 따른 특별휴일 등으로 여행수요 증대

◈ 글로벌 OTA KLOOK, 필리핀 여행객들의 연말 해외여행 트렌드 발표

◈ [경쟁국동향]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지출여력 감소로 가성비,근거리 위주 관광수요 증가

1. 관광정책 동향

○ 필리핀 관광부,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 필리핀 관광부(DOT)장관 디타 앙가라-마타이는 11월 11일 개최된 2026 ASEAN Inclusive Growth Summit에서 관광 인프라 개선과 디지털 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항만과 공항 등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에 관광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솔루션도 확대 추진.
-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두 주요 디지털 서비스 업체(Klook, Gcash)와의 협력관계를 연장하면서 필리핀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 전국 관광 분야 중소기업의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예정
- 또한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천명하면서 민다나오섬을 중심으로 미식·문화·홈스테이 관광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정책방향은 필리핀 인바운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인프라 확장, 결제서비스 디지털화 등은 아웃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방한관광 활성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출입국 보안 시스템 현대화에 따른 신규출입국 수수료 부과 검토 논란

- 민간항공 및 출입국 보안 서비스(CAISS) 프로젝트는 필리핀의 출입국 보안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민관협력사업으로 현재 필리핀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민국(BI)과 사업 제안자는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편도 1인당 240페소(한화 약 5,2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

- 해당 프로젝트가 정부부담분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 비용조달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불가피하지만 ASEAN 11개국의 여객 관련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필리핀은 자국 거주자의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총비용이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미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찬반논란이 거센 상황.

☞ 현재 필리핀 관광객의 경우 출국시 950페소의 공항시설 이용료와 1,620페소의 여행세를 납부중으로 왕복 신규출입국 수수료가 더해질 경우 총 3,050페소(한화 약 67,000원)의 부담이 발생하게 될 예정

☞ 더구나, 필리핀 정부와 의회에서 추진해 온 여행세 폐지 법안이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한 이후 실제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경제계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2. 항공업계 동향

○ 올해 1~9월 필리핀의 항공 여객 수송량 1.13% 감소

-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 항공 여객 수는 4,631만 명으로 전년 동기 4,684만 명보다 감소. 이 중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기 2,189만 명에서 0.96% 감소한 2,168만 명으로 집계.

- 주요 원인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분석됨. 11월 16~30일의 유류할증료는 LV 16수준으로 역대최고를 기록했던 4월말의 LV19보다 소폭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기의 LV 4에 비하면 실질 유류할증료 부담은 5배 이상 증가한 상황.

○ 필리핀 저비용 항공사 세부퍼시픽(LCC), 10월 운항실적 발표

- 세부퍼시픽은 크리스마스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좌석 공급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10월 여객 증가세는 다소 부진했지만 항공편 탑승률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10월 여객 수송량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탑승률은 공급좌석을 5.5% 축소한 효과로

79%에서 84%로 상승.

- 국제선만 보면 실적이 개선됨.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54만 9,000명을 기록했으며, 공급 좌석을 5.5% 축소하였음에도 탑승률은 2025년 10월 71.4%에서 77.6%로 상승.

☞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는 11월 6일에 세부퍼시픽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2027년부터 공동 방한관광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 현지 BTS 공연을 계기로 20~30대 FIT관광객 충성도가 높은 세부퍼시픽의 강점과 공사가 보유한 K-POP·K-컬처 콘텐츠를 결합하여 한류 관심층 대상 항공·관광 결합 캠페인 추진할 계획.

3. 여행업계 동향

○ 11월, 기존 연휴 및 ASEAN정상회담에 따른 특별휴일 등으로 여행수요 증대

* 11월 휴일 : 11.2(월) 만성절 연휴, 11.16~18(ASEAN 특별휴무, 메트로마닐라), 11.30(월) 보니파시오기념일

- NAIA(마닐라 국제공항) 운영사인 마닐라공항 당국(NNIC)은 만성절 연휴 기간인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항 이용객이 총 129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 이는 2작년 같은 기간의 124만 명보다 증가한 수치로 이 중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대비 4% 증가하는 등 유가, 환율 등 여행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여행객들의 여행수요가 여전히 증가 추세.

- 다만, 메트로마닐라 지역에 한해 특별휴일로 선포된 11.16~18일간의 3일 연휴는 만성절연휴에 집중되던 해외여행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 또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의 전용기 주기를 위해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수요가 11.30(보니파시오 기념일)이나 12월 연휴로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부퍼시픽의 경우 예약변경, 전액 환불 등의 선택권을 제공

○ 글로벌 OTA KLOOK, 필리핀 여행객들의 연말 해외여행 트렌드 발표

• Klook이 자체 예약데이터를 바탕으로 필리핀 여행객들의 연말 해외여행 트렌드를 발표

1) 일본과 베트남 부상 : 필리핀 여행객 약 5명 중 1명이 계절성 여행지로 일본을 선택. 일본 외에도 베트남 북부가 추운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대만 역시 겨울 관광지로 인기가 높음

2) 대형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 Klook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BTS 콘서트가 필리핀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수요를 자극. 특히 Klook의 Travel Pulse 2026 조사에 따르면 콘서트 목적 해외관광객의 경우 콘서트 관람 후 현지 관광을 위해 체류를 연장하는 비율이 90%이고 추가 체류기간이 최대 4일인 여행객 비율도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국내 단기여행 수요 증가 : Klook은 연말시즌 마닐라 지역의 국내 숙박 및 단기 체류 예약이 46.5% 증가했다고 발표. 특히 메트로 마닐라를 벗어나지 않고도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가족 단위 여행객을 중심으로 국내 관광시설과 액티비티 예약도 증가 추세.

☞ 여행객들이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새로운 경험을 찾는 것이 트렌드이며 이는 야외 활동, 콘서트, 계절별 관광 콘텐츠, 휴식형 호텔 숙박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나타남.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상황에서 국내여행지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케이스도 늘고있음.

4. 경쟁국 동향

○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지출여력 감소로 가성비,근거리 위주 관광수요 증가

• 전체적인 지출 여력 감소로 동남아 인접국 위주 아웃바운드 관광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는 경향. 전월과 마찬가지로 베트남과 중국의 성장이 돋보이는 가운데 대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와 경쟁국대비 가성비를 바탕으로 성장세 유지. 한국의 경우 K-pop과 K-drama등 K-컬쳐의 영향으로 FIT 관광객의 방문수요가 견조.

※ '25년 9월 대비 '26년 9월 주요 국가 방문 필리핀 관광객 수

구분	한국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
'26년 9월	53,281	64,458	47,572	42,800	47,156
'25년 9월	47,625	88,153	43,886	51,615	51,355
성장률(전년比)	11.9%	-26.9%	8.4%	-17.1%	-8.2%

※ 자료 출처 : 필리핀 관광부 보도자료 등 뉴스 종합

https://www.tourism.gov.ph/dot/news/dot-eyes-investments-for-physical-digital-solutions-to-promote-emerging-destinations

https://www.philstar.com/opinion/2026/11/10/2569061/businesses-want-bi-review-immigration-fee

https://wealthinsights.metrobank.com.ph/news/air-passenger-volume-dips-as-of-september

https://insiderph.com/cebu-pacific-fills-more-seats-in-october-ahead-of-holiday-travel-rush?utm

https://www.philstar.com/nation/2026/11/06/2568236/naia-undas-traffic-4

https://businessmirror.com.ph/2026/10/27/pinoys-holiday-plansdisrupted-by-aseansummit-parking

https://context.ph/2026/11/14/filipinos-chase-cooler-escapes-concert-trips-for-year-end

https://www.mofa.go.kr/ph-ko/brd/m_3637/view.do?seq=1344634&page=1

https://datalab.visitkorea.or.kr/

https://www.discoverhongkong.com/content/dam/dhk/intl/corporate/newsroom/tourisum-statistics/2026/tourism_stat_09_2026.pdf

https://stat.taiwan.net.tw/inboundSearch

https://statistics.jnto.go.jp/

https://data.gov.sg/datasets/d_d1c33009b674dcf70b8e8c790b793f28/view